

빌 코스비, 미투 촉발 후 유명인 첫 유죄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0·가운데)에게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10년이 선고됐다.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25일 이와 함께 코스비에 게 벌금 2만5천 달러(2천791만원)를 부과했으며 코스비를 성범죄자 목록에 등재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코스비는 지난해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 촉발 이후 미국의 유명인사 가운데 처음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이 됐다. 코스비는 3년간 복역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가석방이 안되면 최장 10년까지 복역해야 한다.

코스비의 변호인단은 그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가택연금에 처할 것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닐 판사는 "미스터 코스비,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됐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유명인이든 아니



든 다르게 처벌받을 수 없다. 약물에 의한 성폭행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고 말했다.

코스비는 지난 2004년 자신의 모교인 템플대학 여자농구단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맨션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 총 3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동방신기, 일본 오리콘 위클리 앨범 1위

한류그룹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또 한 번 오리콘 신기록을 세웠다.

25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동방신기가 19일 일본에서 발매한 새 앨범 'TOMORROW'로 발매 첫 주 오리콘 위클리 앨범 차트(17~23일)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동방신기는 통산 7번째 오리콘 위클리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특히 동방신기는 이번 1위로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 남성 아티스트 사상 오리콘 위클리 앨범 차트 최다 1위 기록을 경신하고, 가수 보아가 보유한 역대 해외 아티스트 최다 1위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할리우드 거리 '트럼프 별' 잇단 수난

로스앤젤레스(LA)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패, 일명 '트럼프 별' 위에 철창이 세워져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사진)



이 철창을 설치한 LA지역 길거리 예술가인 '플라스틱 지저스'(Plastic Jesus)는 설치 후 SNS에 "트럼프, 드디어 철창신세"라는 문구와 함께 작품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언론에 "트럼프는 부패혐의로 감옥에 가야 한다"며 예술 작품이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A 경찰 대변인은 '철창'과 관련한 반달리즘(공공 기물 파괴 행위) 신고는 없다고 밝혔으나, 작품은 하

루 뒤 철거됐다.

트럼프 별은 과거에도 몇 차례 훼손된 적 있다. 지난 7월에는 한 청년이 곡괭이로 내리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플라스틱 지저스도 작년 트럼프 별 주위에 15c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을 세워 트럼프 대통령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1천600km

이르는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 별은 트럼프 대통령이 NBC 방송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프렌티스'를 진행한 공로로 2007년 새겨졌다.

P19 숨은그림찾기 정답



1231호 숫자퍼즐 정답

9	7	1	6	8	2	4	5	3
8	2	3	5	7	4	1	9	6
6	4	5	1	3	9	8	2	7
1	6	4	8	2	7	5	3	9
2	3	8	9	4	5	6	7	1
5	9	7	3	6	1	2	8	4
3	8	2	7	1	6	9	4	5
4	1	9	2	5	3	7	6	8
7	5	6	4	9	8	3	1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이름이 운명(運命)에 미치는 영향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뜻하는 하나의 Symbol로서 평생동안 작용하게 된다. 한 사람에게 부여된 이름은 자신의 소유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름을 사용해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매일 입고 다니는 옷차림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외출할 때 옷차림이라도 잘 입고 다니면 어디에 가서도 천대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옷차림새가 마치 거지처럼 하고 다닌다면 처음에는 거지와 같은 대접을 받기 쉬운 것이다. 그렇다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자신이 타고난 사주팔자나 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천(賤)하지 않은 귀(貴)한

이름을 지니고 있으면 어디에 가서도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다. 작명(作名)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먼저 음양(陰陽)의 기운이 원만하게 섞여있는 것이 좋다. 또한 자음의 오행(五行)이 순(順)하게 흘러야 한다. 더불어서 원형이정(元亨利貞)으로 수리(數理)적으로 좋은 획수의 조합이 나오도록 구성해야 하고 또한 한자(漢字) 자체가 가진 의미도 좋아야 한다. 거기에다가 집안에서 내려오는 돌림자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발음상으로도 부르기 좋아야 하고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불용(不用) 문자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타고난 사주(四柱)에서 간지(干支)적으로 부족하거나 넘치는

기운을 조율해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그 사람이 평생동안 살아가는 대운(大運)의 흐름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작명(作名)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5~6 시간 이상을 연구하고 고민을 한다. 왜냐하면 한 번 지어진 이름은 쉽게 바꾸기 힘들기 때문이고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